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어찌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인지, 벌써 한 해의 첫 분기를 지나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며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려 베푸신 사랑과 희생, 그 안에 우리의 영원을 향한 여정이 있음을 상고하며,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귀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깊은 감사를 담아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한참 움추릴 수밖에 없었던 기나긴 코로나(COVID-19) 터널을 지나면서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소망으로 교회 리더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를 하며 연초를 맞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기간에도 변함없이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했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모임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적어지다보니 다시금 영혼구원을 위한 목장모임의 활성화와 분가를 기대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목장과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모여왔던 목장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혼구원의 기쁨과 성도의 교제, 선교에 대한 열정이 깊어지길 소원하며 사랑하는 목자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나갑니다.

<나눔과 영혼구원 기쁨>

다양한 인종과 어우러져 살아오며 형성된 다양한 문화만큼이나 다양한 계층이 있는 멕시코의 사회에서 인디언들은 언제나 소외되어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보이지 않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노동의 착취와 터전의 착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큰 감사가 있습니다. 7-8곳의 마을에 최소한 일년에 한번은 구제양식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원했는데, 올해에도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50kg들이 옥수수 한 자루는 인디언가족의 한 달, 또는 두 세 달을 견딜 수 있는 생활양





식인데 무거운 옥수수 자루를 나르느라 힘이 부치지만 그런 중에도 웃음 짓는 미소를 보며 채워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심에 감사가 있습니다. 양식을 나누던 중 이웃 마을에서 온 카밀라(Camila)와 이르마(Irma)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회 목회자에게 부탁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ids' Cafe>

1월부터 다시금 시작한 어린이들을 위한 Kids Cafe 사역을 위해 헌신한 청소년들과 청년들로 인해 감사가 있습니다. 격주로 섬기는 일이지만 주변의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게임, 공작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모임에 흥미를 갖게 하면서 한 교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기쁨이 있습니다. 매번 다양한 아이들이 찾아오지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어린 마음들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며, 헌신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며 좋은 인도자로, 후원자로 저들과 함께 갈 수 있어 감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사역을 위해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들에게 감사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길 기도하며 사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영혼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토요 Kids Cafe가 잘 정착되고 헌신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꾼들로 자라도록
3. 아내의 디스크 치료와 건강, 인디언마을 사역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많은데,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저의 협심증과 간지방 조절을 꾸준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4. 사역과 가정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넘쳐흘러서 이웃교회들과 인디언마을에 풍성한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멕시코에서 2023년 4월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